

# 새로운 매체환경의 긴장 속에서

## 문자와 인쇄의 역사를 읽는 일의 의미

이중한

출판평론가·서울신문 논설위원

1995년 3월 한달동안 뜻밖의 책 한 묶음을 상당한 감회를 가지면서 읽었다. 이 시점은 누구나 알다시피 문자보다는 영상, 책보다는 테이프와 디스켓이 더 활력을 가지며 효용을 더해가고 있는 시대이다. 그리고 이 힘은 이제 거의 반전(反轉)이 불가능해진 단계에 온 것 같다.

피터 드러커 같은 사람도 최근 저서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결론의 하나로 「읽기를 더욱 더 중요시해야 한다」고 심각히 열변을 토하지만, 이 역시 읽을 때만 그러저럭 고개를 끄덕여보는 이상의 효력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정황에 다음 4권의 책이 불과 한달새 역간(譯刊)된 것은 우연치고는 참으로 대단한 우연이다.

• 「문자의 역사」 엘버틴 가우어 지음/장동일 옮김/도서출판 새날 1995. 2. 28(판권에 기재된 발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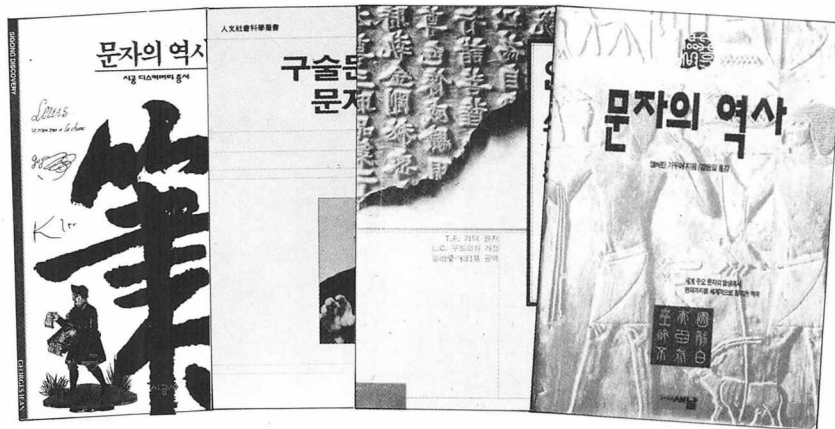
• 「문자의 역사」 조르주 장 지음/이종인 옮김/시공디스커버리 총서1/시공사 1995. 2. 4

• 「인쇄문화사」 T.F 카터 원저·L.E 구드리히 개정/강순애·송일기 옮김/아세아문화사 1995. 2. 28

•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윌터 J. 옹 지음/이기우·임명진 옮김/문예출판사 1995. 2. 20  
나는 여기에 이 책들이 모두 쓸 만한 수준의 책이라 같은 언급을 할 생각은 없다. 왜냐하면 이 책들의 주제가 지금 시장에서 과연 누구를 독자로 할 것인지, 뿐만 아니라 읽어야 할 책으로 분류될 것인지, 그것조차 두려워할 만큼 흐름의 건너편에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 정보저장 형식으로서의 '문자'

엘버틴 가우어는 문자의 역사를 원시문자로부터 시작해서 문자의 전신(forerunners of writing), 과도적 문자(transitional scripts) 등



으로 어떤 체계에 의해 발전했다고 보는 시각을 아예 뛰어넘는다. 그는 문자를 정보저장의 형식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모든 시대, 모든 역사의 시기, 모든 종족에서 그때마다 문자가 썩어지고 형식을 바꾸는 것은 특정수준의 경제적·사회적 발전단계의 어떤 사회가 그 나름대로 정보저장의 형태를 창안해내는 것이라고 본다.

이 시각의 결론은 특별하며 감명 깊다. 이 책이 간행된 해가 1984년으로 정보화사회의 논의가 오늘처럼 그 윤곽을 제법 잡아가고 있는 때가 아니었음에도 저자는 그의 키워드로 오늘의 변화까지 신선하게 정리한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고대세계에서는 문자가 진화하면서 구전이 평가절하되고 결국 배제되어버렸다. 처음에 문자는 주로 상업과 행정에 관한 정보저장을 위해 사용되었으나, 점점 종교문헌과 세속 문헌의 보존에 적절한 것으로 사용되었다. 그때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은 기분 나쁠 정도로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읽고 쓰는 능력과 계산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다. …이제 인간의 기억력은 무의미할 수도 있다. 이미 어떤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자인쇄의 기능은 문자정보를 서기, 출판사, 서점의 도움 없이 기계로 읽고 더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 파멸에 대한 처방전은 있는가.”

인용이 긴 것 같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처방전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처방전 만한 관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고대세계는 구전에서 문자로 이전할 때에도 살아남았다. 인도의 브라만조차도 마침내 그들의 성스러운 원전을 아자수 옆에 옮겨 적었다. 구전에서 문자기록으로 옮겨졌다고 우주의 파멸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 긴장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때에도 긴

장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모든 과도기는 긴장으로 차 있다. 그러나 긴장없이는 알타미라의 벽화가 그려지지 않았을 것이며, 플라톤·성 아우구스티누스·단테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수천년전에 필요한 지식의 총합이 인간의 기억에 저장되기에는 너무 커져 버린 시점에 도달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총합이 문자의 전통적 형식 속에 효과적으로 저장되기에는 너무 거대화해 있고, 너무 급속히 증대하고 있다.”

가우어의 「문자의 역사」는 그러니까 정보화 사회 문자의 서론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다.

이에 비해 조르주 장의 「문자의 역사」는 아직도 문자의 시대가 보편화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천년전부터 지구상 여러 지역에 다양한 문자가 있었고, 오늘날 전세계에는 3천여개의 서로 다른 언어가 있다. 그러나 이들중 1백여개 정도만 문자체계로 발전된 것이고,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성인의 두명 중 한명은 글을 쓰지 못하거나 글쓰기에 서투르다. 그러니 문자는 여전히 보편적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인간사색의 수단으로서 '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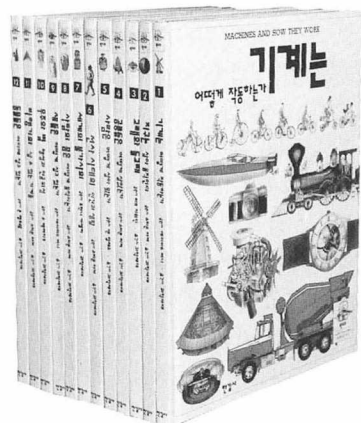
조르주 장은 오히려 문자를 문화적 역사의 장대한 파노라마나 영감에 가득찬 예술세계라는 입장에서 서술한다. 문자가 존재하는 것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문자를 사용하는 집단의 생각이나 느낌을 분명하게 재현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호나 상징체계가 먼저 있어야 하고, 또 이 체계가 여러 사람들 사이에 합의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하므로 이 체계는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질 수 없고, 오랫동안 천천히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에게 문자의 역사는 신비의 역사이고, 6천년 동안 발달한 문자는 사색하고 고안하고

### 화제의 출판

## 인간과 자연과 문명의 원리탐구

### '윈도우' 시리즈 전12권 출간



선사시대 인간의 생활, 공룡, 지구 등 우리의 자연에서부터 문명의 발자취와 컴퓨터 우주 등과 같은 첨단과학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자연과 문명의 원리를 풍부한 일러스트와 함께 보여주는 시리즈. 영국의 유명한 돌링킨더슬리사가 기획, 세계 26개국에 동시 출간될 만큼 뛰어난 편집을 자랑한다.

1권 「기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에서부터

화산폭발, 지진, 대륙이동 등 살아있는 지구의 모습, 장난꾸러기 돌고래의 생활, 화석만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 공룡의 모든 것 등이 사실적인 일러스트로 상상력을 더하고 있다.

또 초기문명시대 이후 선사시대의 인간과 생활, 지금은 이야기로만 전하는 전세계 불가사의한 유적들, 그리고 사람의 몸은 어떻게 움직이며 새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등 전체 12권의 흥미로운 주제들이 영국 자연과학 문명저술가들의 알기쉬운 해설로 이해를 돕고 있다.

이 시리즈의 또다른 특징은 어린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독자층에 고루 읽힐 수 있도록 컴퓨터 윈도우 개념을 도입, 세밀한 일러스트와 그에 대한 알기쉬운 설명으로 풍부한 상상력과 종합적 이해를 돕는 '멀티북' 개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한길사/B4/각 64면/각 8000원

문자보다는 영상, 책보다는 디스켓이  
효용을 더해가는 시대적 상황에서  
이들 책이 한꺼번에 역간된 것은  
우연치고는 참으로 대단한 우연이다.  
이들 네권의 책은 정보저장과  
인간사색의 수단으로 의미를  
더해왔던 문자와 인쇄의 역사를  
각각 다른 시각에서 풀어내고  
있다. 변화하는 매체환경 속에  
새롭게 살기 위해 읽을 책들이다.

창조하는 데 필요한 인간의 수단이다.  
결국 이 두 책은 같은 책이 아니라 전혀 다른  
문자의 양면을 쓰고 있다. 이 점에서 나는 이  
책을 문자와 읽기와 도서출판의 미래를 전망  
하는 데 상당히 쓸 만한 사고의 출발점을 마  
련해 준다고 읽었다.  
원저자 카터가 1925년에 쓰고 그의 후학 구  
드리히가 1955년에 개정판을 낸 「인쇄문화사」  
는 콜럼비아대학 출판물로 원제가 「중국에서  
의 인쇄술발명과 그 서방전파」이다. 그래서  
중국뿐 아니라 한국의 인쇄사도 상당히 바르  
게 기록돼 있다.

중국은 종이를 발명하고 조판인쇄와 활판인  
쇄를 가장 먼저 시험했다. 조선은 최초로 주  
조된 주형에서 주조한 금속활자를 사용해 인  
쇄했다. 일본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인  
쇄물을 생산했다. 터키는 아시아를 통해 목판  
인쇄를 운반한 중요한 중개역할을 했다. 아랍  
인들은 중국에서 유럽으로 제지술을 운반했  
고, 종이는 콘스탄티노플에서 그리스로 입수  
됐다. 이로부터 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는  
목판인쇄술을 발전시켰고 폴란드·프랑스는  
활자인쇄의 선두가 됐다. 이후 중국에서는 목  
판인쇄가 계속 유행하고, 유럽에서는 활자인  
쇄로 진전했는데 그 이유는 중국과 유럽의 문  
자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책을 함께 읽은 효용은 장 조르  
주가 한국을 거의 목살했으며, 엘버틴 가우어  
가 최소한의 필요에 의해서만 한국을 언급한  
것에 비해 카터는 사실을 사실만큼 서술하고  
있는 한국 문자·인쇄의 역사 부분에 대한 학  
인이랄 수 있다.

이 점에서 세계의 문자나 인쇄역사서는 우  
리도 직접 한번 써 두어야겠다는 문제를 인식  
케 해주고 있다.

#### 구술과 문자 사이의 정신주의

미국 현대언어문화학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예수회신부학자 윌터·J·옹의 「구술문화와 문  
자문화」는 앞의 역사서들과는 좀 성격이 다른  
책이다. 이 책의 주제는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사이에 있는 정신주의(mentality)의 차이에 관  
한 것이다.

그러나 그도 쓰기와 읽기와 문자와 인쇄,  
그리고 컴퓨터까지 언급하고 있다. 정신 속에  
있는 것을 정신 밖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쓰  
기는 기억을 파괴하고 비인간적으로 한다고  
말한 것은 소크라테스이다. 인쇄도 일찍이 비  
난받았다. 1477년에 라틴어의 고전인쇄를 축  
진시켰던 히에로니모 스쿠아르시아피코 자신  
이 “책이 너무 많아져서 사람들은 학문로부터  
떨어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컴퓨터에  
대한 비난은 아주 간결하고 명쾌하다. “먼지  
가 들어가면 먼지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다.

그러나 쓰기는 하나의 기술이며 쓰기는 쓰  
기나름으로 의식을 재구조화한다. 인쇄와 컴  
퓨터도 언어와 함께 각각 다른 차원의 구조화  
를 이룬다. 특히 한 개인이 우주 속에서 자기  
자신을 느끼는 방식에 구체적인 영향을 줬다.  
그동안 이 영향은 쓰기에 의해 강력하게 진전  
했다. 그러나 정신적 내면화에 이것은 바람직  
한 것인가. 이 관점에서 저자는 인쇄물을 단  
혀진 텍스트, 폐쇄된 공간으로 본다. 전자시  
대 역시 구술에 의한 화자와 청중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그의 걱정은 구술성  
시대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고방식으로서의 집  
단정신이 더욱더 사라져간다는 데 있다.

이러한 철학적 이야기는 문자와 인쇄의 역  
사를 이 영역 밖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보완하는데 도움을 준다.

4권의 책을 나는 이 글에서 어느 한 측면으  
로만 읽었다. 그러나 오늘의 요구에 부응해  
변화하는 매체환경 속에 새롭게 살기 위해서  
도 이 책들은 읽을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

지금은 발전의 시대라기보다 너무 낮설고  
그 윤곽을 알기 어려운 기술우위의 긴장시대  
임을 이 책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대주신제국사



## 大朝鮮帝國史

한국문화문화상 수상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우리 역사 -  
올바른 역사의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보급판

대한의 젊은이여, 「대주신제국사」를  
읽고 민족중흥의 역군이 되십시오.

중국대륙에서 일본열도에 이르기까지  
웅대한 기상을 드높였던 우리 역사의  
흐름을 알고, 민족의 뿌리를 찾아가는  
찬란한 우리 민족사 -  
이제, 「대주신제국사」를 통해 잘못된  
역사의 진실을 찾고, 장엄한 민족의  
기개를 바로세워야 할 때입니다.

- 장서판 : 90,000원 (전3권)
- 보급판 : 29,400원 (전3권)
- 날권판매 가능 (각권 9,800원)

국내 최초의 회화각본  
산 호 글/그림



장서판



유머와 해학이 담긴  
대한 역사 만화소설

# 고우영 만화 심팔사략

심팔사략(十八史略)이란?  
중국의 정사 26종 중 사마천의  
사기(史記)에서 탁극락의 송사  
(宋史)까지 18종의 정사를  
원나라 때 중신지가 심팔사략으로  
요약한 책

지금, 4천년 중국 역사의 주역들이  
고우영의 유머와 해학속에 다시 태어난다.

역사의 술한 인간상들에게서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방식을 발견하십시오.

중국 역사중 가장 흥미있고 중요한사료와 인물들을  
총망라하여 고우영의 유머와 해학으로 펼쳐가는  
「만화 심팔사략」-  
경영전략, 인생지략은 물론 삶의  
철학과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값/각권5,000원



1, 2, 3권  
절찬리 판매중

동아출판사  
TEL: 861-4818/853-5608